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언젠가는 설화로…

인간에게는 정체성이란 것이 있다. 때문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제 역할을 기하기 어렵다. 그 인간들이 모인 집단 역시 마찬가지다.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다. 때문에 구성원들의 색깔은 집단의 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구성원들과 집단의 색이 같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뜻이다.

당초 그 집단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위장을 한 채로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집단과 구성원의 정체성이 변질되었든지 등의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부분은 철학 없는 위장이요, 뒷부분은 변절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당 꼴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말썽 메이커라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소속 이언주 의원은 '임금체불도 참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또 구설수에 올랐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습니다."라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알바생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막창에서 피땀 흘리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무슨 알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알바 당시 그 어디서도 돈을 구방 할 수 없는 막창 인생이었을까. 그의 이력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 부산 출신으로 현재 44세다. 부산 영도 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를 나왔고 변호사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다. 일명 꽃길만 걸었고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 서민들의 심정을 알겠는가.

물론 서민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알아 달라고까지는 않는다. 제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면서까지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문에 돈을 떼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그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리도 모진 소리를 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가진 자의 오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도 설익은 인간의 오물토설로, 그야말로 갖잖은 인간의 저속한 작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을 막말로 비하한 이언주 의원은 사퇴하라"면서. 이 의원은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일로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 부문 노동자 전체를 싸잡아 모욕했다"면서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임을 확신한다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세치 혀의 독설로 언젠가 커다란 설화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표현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평소 마음을 뜻한다. 유권자들이 영민하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로 그를 여의도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밀과 가라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지만 추수할 때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음 선거에서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화염에 휩싸여 사라지길 바란다.

社 說

서민 목 죄는 금리 인상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다니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를 인상한다.

신한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2~4.13%에서 2.83~4.14%로 올라간다. 우리은행은 2.87~3.87%에서 2.88~3.88%로, 하나은행은 3.02~4.10%에서 3.03~4.11%로, 농협은행은 2.61~4.21%에서 2.62~4.22%로 0.01%포인트 올라간다.

국민은행은 코픽스 상승과 함께 가산금리 변동으로 3.10~4.30%이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15~4.35%로 0.05%포인트 상승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4월 1.46%에서 5월 1.47%로 오른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 설명했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올라서다.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5.4%였다.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목줄을 죈다고 할 것이다.

정부나 개인이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김 병 관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몰카범죄 조심하자

연일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빈틈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해마다 여름철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발생한 성범죄 2만2034건 중 여름철 발생은 6977건으로 3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 가운데 9635건(32.3%)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비중과 빈도 부분에서 '여름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성범죄 중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이른바 '몰카'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몰카)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5배가 됐다.

몰카 범죄의 경우 최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고화질 촬영과, 갈수록 카메라 제작 기술이 정밀하고 교묘해져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안경, 단추, 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일반인이 예상치 못하여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경찰에서는 7월부터 몰카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장비를 각 지방청·경찰서에 87대를 보급하여 휴가철 기간 동안 피서지, 탈의실, 공중화장실과 같은 시설에서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있는지,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을 시에는 숨기거나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몰카를 목격한 경우에는 내가 족도 위험해 질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다른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몰카 범죄 근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스스로 몰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한다.

피서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탈의실, 공중화장실과 같은 시설에서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있는지,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을 시에는 숨기거나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몰카를 목격한 경우에는 내가 족도 위험해 질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다른 2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 성범죄에 노출되어 망치지 않도록 우리모두 주의를 기울이자.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해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음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위축시키고자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단속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음주운전이 부채질 되고 있다.

이러한 운전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을 피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한국도로공사 연구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 했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가 높게 되고,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는 사고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히 가벼운 잠깐의 일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 더 크게는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弁	고깔	변	弁轉疑星
轉	구를	전	▷뜻: 많은 사람들의 관에서 번쩍이는 구슬이 별안간 의심할 정도임.
疑	의심할	의	
星	별	성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